

東京大學

崔 在 喆
(韓國外國語大 日本語科)

한 뒤에 留學生活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I. 머리말

東京大學은 1877년에 창설된 國立綜合大學으로, 日本의 수많은 대학 중에서 가장 오랜 歷史와 뛰어난 傳統을 가지고 있다. 東京大學은, 1868년에 설립된 (東京)開成學校와 (東京)醫學校를 1877년에 통합하여, 法學·理學·文學·醫學部를 들으로써 正式으로 發足하게 된다. 그 후 帝國大學(1886년), 東京帝國大學(1897년) 등으로 명칭도 時代와 더불어 流轉되어 오다가, 1947년 이후 현재와 같은 東京大學으로 이름이 定着되게 된다.

동경대학은 明治維新 이래 近代國家로 발돋움하려는 日本에 있어서, 西歐의 새로운 文物을 理解하고 受容하는 窓口의 역할과, 政府 각 부처의 관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다. 이는 선진 서양문화를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人材 양성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東京大學의 역할과 그 비중은 현재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공무원, 은행, 商社, 신문, 통신사, 研究分野 등에서 東京大學 出身은 엘리트 集團을 형성하여 日本을 움직이는 핵심체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東京大學의 이모저모를 살펴 보고, 특히 單科大學으로서의 '敎養學部'를 紹介

II. 東京大學의 이모저모

東京大學에는 현재 10개 學部(大學)와 11개 大學院 研究科 및 13개 附設研究所가 설치되어 있다. 즉 法學部·醫學部·工學部·文學部·理學部·農學部·經濟學部·敎養學部·敎育學部·藥學部와, 부설연구소로서 의과학연구소·동경천문대·지진연구소·동양문화연구소·사회과학연구소·신문연구소·생산기술연구소·史料편찬연구소·응용미생물연구소·宇宙線연구소·原子核연구소·物性연구소·해양연구소 등이 있다.

이들 연구소는 막대한 예산과 우수한 두뇌로써 명실상부하게 日本의 학문 연구분야의 礎단을 길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 學內 공동 교육연구 시설로는 종합연구자료관·원자력연구종합센터·정보도서관학연구센터·보진센터 등 8개가 있고, 全國 공동이용 시설로는 大型計算記센터가 있어 컴퓨터 용량 면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부속시설로서 부속병원·부속 중·고등학교·식물원·목장·농장·演習林·실험소·관측소 등이 日本 全國에 散在해 있다. 이상과 같은 大學, 연구소 등의 운영에 연간 약 1,000억圓의 예산을 쓰고 있다.

東京大學의 교직원수는 1982년 현재 조교수



이상 1,660여 명, 강사 200여 명, 조교 1,800여 명, 적원 및 기타가 4,800여 명으로 합 8,500여 명이다. 학생수는, 학부생 14,000여 명(외국인 60명 포함), 학부 연구생 및 기타 400명(외국인 10명), 대학원생·석사과정 2,200명(외국인 65명), 박사과정 2,000명(외국인 150명), 대학원 연구생 260명(전원 외국인), 합 18,900여 명(외국인 학생 550여 명 포함)이다.

학부의 입학정원은 1968년 이후 3,000명 수준으로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원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1,300명, 박사과정 900명 선으로 되어 있다. 졸업생은 학부 구제도와 신제도를 합쳐서 17만여 명이며,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생 2만여 명, 박사과정 수료자 6,000명, 박사학위수여자 구제도 11,200명, 신제박사 6,100명이다. 이들은 명실공히 政·財界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로 일본의 학문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학기 구분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 전기가 4月上旬에 시작되는데, 7월 상순부터 9월 상순까지가 여름방학이고, 9월중~10월 상순에 전기 시험이 있다. 그리고 10월 상순에 후기 수업이 시

작되어, 12月末부터 이듬해 1월 상순까지 겨울 방학이고 후기시험이 2월 중순~3월 상순, 3월 상순~4月初까지가 봄방학이 된다. 이는 중·고등학교의 학사 일정과의 조정과, 겨울이 별로 춥지 않아 1,2월에 수업이 가능하다는 등의 기후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동경대학 부속 総合圖書館에는, 약 84만 권의 도서와 5천 종의 잡지류가 비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총합(中央)도서관에는 동경대학 전체의 장서 약 513만 권의 「全學總合目錄」이 구비되어 있어 각 학부, 각 연구소의 도서관, 도서관 및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전문서, 참고서, 학술잡지의 이용시에 안내 역할을 맡고 있다. 장서수에서 뿐만 아니라, 각 전문 분야별로 각 연구실에 기본 전문서 및 참고서적이 집중 비치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손쉽고 아주 편리하다.

동경대학의 캠퍼스는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대학본부와 대부분의 시설이 모여있는 혼고(本郷) 캠퍼스이고 또 하나는 教養學部와 大學院 일부가 있는 코마바(駒場) 캠퍼스이다. 동경 시내에 있는 두 캠퍼스는 전차로 40분 거리에 있다. '혼고'라는 말 자체가 동경대학을

뜻할 정도로 100여 년의 대학 역사와 더불어 유서 깊은 거리가 됐다. 근대화와 함께 일본의 학자, 文人들의 근거지가 되어 근대 문학작품 속에 흔고 주변이 배경이나 소재로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현역 원로 작가인 키노시타 준지(本下順二)는 최근에 「本郷」라는 제목(월간문예지 「群像」에 연재)으로 스스로 50여 년간 살아온 흔고 거리를 자서전 풍으로 그리기도 했다. 동경대의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학교 표시인 은행나무 잎을 들 수 있다. 정문에서 대강당에 이르는 길 양편에 늘어진 은행나무 가로수 길, 즉 이쵸나미키(銀杏並木)는 사계절 어느 때 걸어도 좋다. 1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4층 건물보다도 더 높이 치솟아 여름엔 마치 가로수 터널 같다.

또 ‘赤門(아카몽)’은 대학 입시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이 門은 에도(江戶) 시대, 1827년에 지어진 것으로 전통적인 기와 지붕의 양식인데 기둥 등에 주홍색이 칠해져 있다. 대강당인 야스다(安田)강당은, 60년대 말 학생운동과, ‘안보투쟁’ 이후 강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지금은 사무실과 체육실, 식당, 기타로 개조하여 쓰고 있으나, 시계탑이 있는 건물 자체의 위용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유서 깊은 건물들 사이에 숲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연못을 산시로 이케(三四郎池)라고 하는데, 이는 근대문학자 중 대표적인 인물인 나즈메 소오세키(夏目漱石)의 대표작 중 하나인 「산시로(三四郎) (1908년, 朝日新聞 연재 소설)」에 유래하여 붙여진 뜻깊은 이름이다. 이 작품은 지방에서 상경한 산시로가 동경대학에 입학하여 이 연못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활 가운데 思想과 人生에 눈떠 간다는 얘기이다. 이와 같은 ‘本郷’ 캠퍼스는, 동경국립박물관과 서양미술관, 동경문화회관 등이 있는 우에노(上野)공원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다.

‘本郷’의 학생 자치활동의 하나로 ‘五月祭’를 들 수 있다. ‘五月祭’는 학생 축제로서 각종 강연회, 연구회, 콘서트, 전시회, 서클별 다양한 기획 등 東大生의 또 다른 일면을 볼 수 있다.

Ⅲ. 教養學部와 教養學科

戰後(1945년)의 東京大學의 特性으로서는 獨

립된 單科大學으로서의 ‘教養學部’가 新設했다는 점일 것이다. 1949년 新制 東京大學의 發足과 더불어 第一高等學校, 東京高等學校를 흡수하여, 일본의 국립대학 중에서 유일한 教養學部를 창설하게 되었다. 교양학부는 메구로(目黒)區, 코마바(駒場) 캠퍼스에 있어, 보통 ‘코마바’로도 불려진다. 駒場에는 東大生 1, 2학년과 교양과정 학생 전원을 수용하여, 외국어 및 교양과목을 이수시킴과 아울러 3, 4학년 코오스인 ‘教養學科’를 두고 大學院 과정으로 ‘總合文化研究科’를 설치하고 있음이 두드러진 특색이다.

교양학부의 1, 2학년 코오스인 前期課程을 이수하면 3, 4학년 코오스인 후기과정으로 교양학부 내의 교양학과 및 혼고에 있는 각 學部에 진학하게 된다. 1, 2학년에서 제열별로 수업한 후 성적순에 의하여 제 1지방 학과에 진학할 수 있다. 教養學科는 인기학과 중의 하나라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많은 편이다.

설치 당시 교양학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각 地域의 문화와 사회, 國際關係論, 科學史 및 科學哲學 등 6개 分科課程을 두었다. 나중에 文化人類學分科 및 人文地理學分科(1954년), 러시아의 社會와 文化分科(1966년),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分科課程(1973년)이 추가로 설치됐다. 1978년에 다시 教養學科 제 1(總合文化), 교양학과 제 2(地域文化), 교양학과 제 3(相關社會科學)의 3개 학과로 개편됐다. 교양학과 제 2(지역문화)에 「中南美의 社會와 文化」 文科課程이 1981년에 추가 發足되었고, 基礎科學科 제 1(相關 기초과학), 기초과학과 제 2(시스템 기초과학)가 독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양학과의 특성은 각 지역의 사회와 문화연구 및 상호 관련된 인접문화가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學際的인 연구방법은 학문의 상호 보완성과 미래지향적인 포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日本의 각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연구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동경대학의 수업 방식은 주로 과제 도서의 독파, 자료조사 및 실험, 분석보고와 발표, 토론의 세미나 방식이고, 전공선택 과목은 대체로 소수 그룹이며, 연구실·지도교수별로 제자를 키

우는 전통적인 徒弟制度가 아직도 벉을 잇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學界의 선·후배 의식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東京大學의 독자적인 學風에 國際性和 國際性이 가미되어 학문의 종합성, 대학의 國際化와, 대학과 實社會와의 교류, 日本과 國際社會, 科學과 相互理解라는 등의 측면에서도 東大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양학과 30주년 기념 연속심포지움(1981~82년)—歷史로부터 未來에—의 주제만 봐도 교양학과의 특색을 엿볼 수 있다. 즉 「지역문화와 국제관계」, 「문화차이와 異文化理解」, 「藝術의 뿌리에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國際性이 풍부한 인물을 기르기 위해 外國語 교육이 강화되었고, 國際性을 높이기 위해 美國式의 새로운 학문 연구방법이 적극적으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교양학과 1기생으로 敎養學部 교수이며, 교양학부장을 역임한 혼마(本間 長世)씨의 말을 빌리면, 기성의 원리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체로, 學際的인 연구방법을 논하는 자체가 과거에 집착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라고 하는 존재를 전체로 국제관계를 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관계론으로서 불충분하는 점과 통한다. 國際性만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국제성을 의식하고 있는 한 충분히 국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자각이 일고 있기도 하다.

교양학과에서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가 늘어나고, 교양학과에서 배우는 외국인 학생이 많아져 함께 日本의 社會와 문화를 연구하고 같이 외국 문화와 사회를 배워, 現代 文明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끊임없이 전체를 투시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일 것이다.

30년 전의 교양학과의 창설은 패전에 대한 주체적인 知的 對應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美國을 위시한 先進產業社會가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 저조기에 들어가, 일종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강해지는 가운데, 경제대국 日本이 자기 진로를 결단하기 어려울 때, 어디선가 새로운 知的 活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때 舊制 第一高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學際性, 國際性이라고 하는 첨단적인 목표를 내건다고 하는, 역설적인 성격을 스스로 부여하고 출발한 敎養學科는,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日本의 知的 活力의 하나의 源泉이 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다.

IV. 留學生活

동경대학의 외국인 학생 500여 명 중 한국 유학생은 140여 명(1982년 현재)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만(120명), 中共(70명), 미국(40명), 프랑스(20명) 등 세계 50여 개국의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한국 유학생 140여 명 중, 학부생 20명은 거의 모두 재일교포 출신이고, 대학원생은 석사과정에 20명, 박사과정에 50명, 기타 연구생이 50여 명이다. 분야별로는 工學과 農學 전공자가 각각 20~30명 선으로 가장 많고, 人文社會系 전공자들이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理學, 藥學, 醫學, 전공자가 5~10여 명씩 있다.

日本語學·文學·日本文化·比較文學比較文化 전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추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人文·社會系의 한국 유학생들은 ‘日本文化研究會’를 열어, 2개월에 한번 정도 돌아가며 발표자를 정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대하여 세미나를 갖기도 한다. 전체 유두 학생 모임은 신입생 환영회와 送年會 등 1년에 차례 모이는 것이 보통이다.

東大에는 학생부 학생과에 ‘外國人學生掛’가 있어 유학생의 숙소 알선, 일본어 학습, 전학 여행의 계획 등, 일상생활과 과외활동에 관하여 조언과 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또 각 學部에서는 유학생 담당 직원이 별도로 카운셀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밖에 튜터 制度가 있어 日本人 학생이 일본어 지도와 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있고, ‘東大國際交流會’라는 서클이 日本人學生과 留學生과의 교류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기도 한다.

유학생은 대개 첫째 1년간은 外國人 研究生 신분으로 있으면서 정규 大學院生이 되기 위한 진학시험 준비와, 연구 분위기, 학습, 실험방법 등을 익히게 된다. 이 기간은 지루하고 부담

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만큼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시기이기도 하다. 1년만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연구생으로 2년 이상씩 머물 경우도 생긴다. 박사학위 취득은 理科系에서는 과정 수료와 함께 대체로 가능하나, 文學·法學·經濟學·

社會學 등 文科系 전공분야에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다음과 같이 東京大學 大學院의 研究科 및 專門課程을 참고로 소개하고 이 글을 간단히 마치고자 한다. *

東京大學 大學院 研究科 및 專門課程

研究科名	專 門 課 程 名
人文科學研究科	국어국문학, 중국어중국문학, 서양고전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언어학, 국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고고학, 철학, 중국철학, 인도철학, 윤리학, 종교학종교사학, 미학예술학, 미술사학, 심리학
總合文化研究科	비교문학 비교문화, 국제관계론, 지역문화, 相關사회과학
教育學研究科	교육학, 교육심리학, 학교교육학, 교육행정학, 체육학
法學政治學研究科	공법, 민형사법, 기초법학, 정치
社會學研究科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經濟學研究科	이론경제학·경제사학, 응용경제학, 경영학
理學系研究科	토목공학, 건축학, 도시공학, 기계공학, 산인기계공학, 船用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선박공학, 항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물리공학, 計數공학, 원자력공학, 자원개발공학, 금속공학, 금속재료학, 공업화학, 합성화학, 反應화학, 화학공학, 情報공학, 화학에너지공학
農學系研究科	농업생물학, 농예화학, 임학, 수산학, 농업경제학, 농업공학, 축산·수의학, 임산학
醫學系研究科	제 1 기초의학, 제 2 기초의학, 제 3 기초의학, 사회의학, 제 1 임상의학, 제 2 임상의학, 제 3 임상의학, 제 4 임상의학, 보건학
藥學系研究科	藥學, 제약화학, 생명약학